

2022년도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결과

2022. 3.



목 차



I. 회의개최결과	5
-----------------	---

II. 주요발표 및 토론 내용	6
------------------------	---

[별첨1] 회의일정	17
------------------	----

[별첨2] 참가자명단	18
-------------------	----

[별첨3] 설문조사결과	22
--------------------	----

[별첨4] 언론보도내용	24
--------------------	----



[회의전경]



이관섭 체어맨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이수철 코디네이터(GH홀딩스 회장)

[발표자]



이형오 숙명여대 교수



오카다 한국스미토모상사 사장



나기라 마이ナビ코리아 사장

[자유토론]

[서울 회의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황진오 삼성전자 부장



문성용 산업부 사무관



이지평 외국어대 교수



유정화 아즈미&사키이 변호사



미네 JETRO서울사무소 소장



가타오카 한국도레이 부대표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도쿄 회의장]



우에다 오오가키정공(주) 회장



이즈모 경제산업성 한국실 실장



후지요시 휴먼링크(주) 상석위원



서가람 주일한국대사관 상무관



이테이시 일본방송협회 해설간사



고레나가 일한경제협회 고문

I. 회의 개최결과

1. 일시·장소 : ' 22. 3.17(목), 13:30~17:20 서울-도쿄 연결 화상회의
- 서울 : COEX Conference Room 3층 327호, 도쿄 : Hotel Okura 東京
2. 주최기관 : 한일경제협회, 한국무역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3. 참 가 자 : 총 81명
- 한국측 : 이관섭 체어맨(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 36명
- 일본측 : 아소 유타카 체어맨(아소시멘트 회장) 등 45명
4. 회의주제 :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 세션 1 :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한일경제
- 세션 2 : 새로운 스테이지에 대한 대처
5. 회의 개최결과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상정의제인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사전 전문가 회의로서의 역할 수행
-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불안 및 코로나19 팬데믹·한일관계의 악화지속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한일협력의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

□ 주요 제언내용

① 한일 경제관계의 새로운 전개 방향 제언

- 한일은 변함없이 중요한 무역 파트너, 서플라이 체인 재편 속에서 종래의 한일 산업협력 재강화 필요성 공감
- (전개방향) 수평무역 활발화·소비재 무역 진전, 서비스 무역 확대, 인재의 활발한 왕래

② 한일 산업기술협력 30년의 회고 및 기업간 협력의 방향 제언

- 기업 경쟁력의 변화(한 : 시장지향형, 준조합형 제품 전략, 글로벌지향, 일 : 조직지향형, 통합형 제품 전략, 국내지향)
- 한일재단설립 후 30년간 한일기업간 협력의 성과(협력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상호 발전 견인)
- 한일기업간 협력의 향후 방향 : 한일 기업간 협력의 강화 (협력 사례 발굴·전파, 상호 기술이전·무역확대, M&A·투자활성화,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③ 탄소중립 시대의 한일 양국 공통과제인 수소분야의 협력 제언

- △저렴한 제조, △대량 제조·수송 공급망 구축 △대량 이용(발전/자동차/산업)분야 협력 :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JH2A(수소밸류체인추진협의회)

④ 한일 인적교류 협력 제언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취업 프로세스 변화 (IT업계, 물류업계, 광고업계, 제조업계)

⑤ 기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

- 정치·외교분야에서 경제활동에 더 이상의 장애요소가 없기를 요망
- 경제논리에 따라 교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응
- 징용공 배상관련 자산 현금화시 돌이킬 수 없는 충격 발생
- 상대국 좋아하는 분위기를 소중히 생각하여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
-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Ⅱ. 주요발표 및 토론 내용

□ 개회인사

○ (일본측 체어맨/아소 유타카 회장)

- 내년에는 같은 공간에서 직접 만나 뵙고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 격동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이 함께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
- 코로나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세계 경제는 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에 따른 에너지 부족 및 물가상승 등 세계경제는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한 후의 **한일 양국의 경제 연계,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다음단계에 대해 같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깊음**
-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고다이라 나오 선수와 이상화 님의 변함없는 훈훈한 장면을 보면서 민간교류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으며, 신산업 무역회의, 경제인회의도 양국의 지속적이고 전향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음

○ (한국측 체어맨/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 (국제통상 환경 악화와 얼어붙은 한일관계) 팬데믹, 국지적 분쟁, 공급망 위기, 물류대란 등 국제 통상환경 악화 및 어려운 경영 여건에 직면
- 지난 3년간 팬데믹과 수출규제로 굳게 닫혔던 빗장을 열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기
- (향후 미래 협력) 국제사회 현안에서 한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올해 발효된 RCEP은 한일 간 최초 체결된 FTA, 최근 일본의 외국인 입국 제한 완화 지침에 따라 인적교류 재개에 청신호
- 한일은 상호보완의 분업구조를 토대로 함께 경쟁력을 높여 왔기에, 양국이 본래의 성장궤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상생의 노력이 중요
-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양국 간 미래협력 분야를 모색함과 동시에 공통과제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며, 한일경제인회의의 방향성을 제시
- 점차 완화되는 규제와 여건 속에서 한일 기업인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서로 협력한다면 경제상황 극복은 물론 한일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일본측 코디네이터/다카다 노부아키 NRI사회정보시스템 시니어컨설턴트)
 -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제22회를 맞이했는데, 아쉽게도 작년에 이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음
 -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리모트 워크나 온라인 회의가 당연한 것이 되어, 익숙해졌으나, 가능하면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에는 변함이 없음
 - 이번 테마는,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이며, 코로나라고 하는 전례없는 어려움에 놓락되어왔지만, 둘러싸인 환경의 어려움에 한탄만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 **향후를 향한 논의**를 해보자는 것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수습되지 않아, 위드 코로나 상황하에서의 경제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또한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물류 및 노동력의 왜곡으로 **공급망이 손상**되었고, 미중관계 및 우크라이나 등 **국제정세도 혼돈** 상태임
 - 한국은 새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고, 일본도 7월 참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불투명한 시대야말로, 제휴로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

- (한국측 코디네이터/이수철 GH홀딩스 회장)
 - 내년에는 서울에서 대면하여 교류하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
 - 그간 한일관계 악화되었으나, 새 정부 출범 계기로 다소 한일관계 완화 기대
 - 한국도 2월에 RCEP 발효, 향후 CPTTP에도 가입되어 **한일 교역이 활발**해지기를 기대
 - EU와 같은 **경제공동체** 만들어야 진정한 이웃이 될 것이며, **한일 경제인들의 미래지향적인 활약**을 기대

- (일본측 주최기관/우치다 토시아끼 일한경제협회 전무)
 - 이번 신산업무역회의도 작년에 이어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스크린을 통해서지만 한국 회의장의 경제인들과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함
 - 작년 회의에서는, ‘미래’를 테마로 논의하였고, 많은 분으로부터 귀중한 의견을 받았음. 특히, **경제 연계의 중요성을 폭넓게 발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여러 명으로부터 받았고, 그 후의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에서 ‘**굳건한 파트너십**’과 ‘**우호 인프라 구축**’에 대처하는 것이 포함되었음
 - 이번 테마는,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이며,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움직임도 진전되어갈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타이밍임
 - 이전 경제인회의에서 ‘한일의 기업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연계한다’

는 발표가 있었으며, 한일은 서로 소중한 이웃나라임과 동시에 많은 공통점을 갖고,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아오고 있음

- 오늘의 결과는 다음 한일경제인회의에 계승되어 공동성명이라는 형태로 제언될 것임. 새로운 연계 힌트, 새로운 메리트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

○ (한국측 주최기관/서석승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 한일 정치·외교 관계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기대
- 양국 경제인들이 22년간 회의를 이어가는 자부심과 잘해 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낌
- 정치·외교관계 어렵지만 산업·무역분야에서는 일관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갖고, 세계를 향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피부로 느껴지는 성과가 중요
- 경제인들이 선두에 서서 실제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
- 선배 경제인들이 만들어 주신 회의체인 한일경제인회의(54회), 한일산업무역회의(22회)를 통해, 서로의 힘을 모아 책무 다해 나가기를 기대

□ 세션1 (미래로 나아가는 한일경제)

- 발표자 : 아베 마코토(安倍 誠) JETRO아시아경제연구소 신영역연구센터 센터장
□ 주 제 : 「한일 경제관계의 새로운 전개」

○ 한일 무역

- 2000년대 대일수입이 대폭 확대, 2010년대 수출입 모두 축소·회보.
한국무역에서 일본의 비중은 수출입 모두 감소, 그 대신 중국이 상승.
일본무역에서 한국의 비중은 수출은 2000년대에 상승,
수입은 약간 하락후 회보→ 중요한 무역 파트너임에는 거의 불변
- (변동요인1) 철강무역
 - * 2000년대 한국의 적자확대, 2010년대 적자 축소
 - * 철강 수평무역의 활발화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 (변동요인2) 전자재료·제조장치
 - * 2000년대 한국 반도체·FPD 생산확대로 일본 부자재·제조장치 수입증가
2010년대 반도체 및 FPD는 다른 움직임
FPD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감소(한국내 생산·투자 감소, 국산화율 상승)
반도체 : 대일수입액은 2010년대에도 증가(한국내 생산·투자 증가,
낮은 국산화율/반도체는 다양성·고순도 필요)
 - * FPD·반도체 부재·장치 국산화 상승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활발해진
일본계 공급업체의 한국 진출이 크게 기여 : 수출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
= 확대되는 수요에 대한 대응, 일본 국내 수요 감소

- 향후의 한일 간 서플라이 체인
 - * 순조로운 경영으로 현지 경제에 공헌하는 주한 일본계 기업 제트로 '2021년도 해외진출 일본계 기업실태조사'
 - 2021년 흑자전망 기업 85.3%,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은 높은 비율
 - * 다른 한편으로 한국계 공급업체도 성장
 - 1990~2000년대에 설립된 중소·중견기업이 많아, 연구개발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디바이스 기업은 조달변경에 따른 인증평가비용 부담 기피
→ 한국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전략'에 힘입어 변화
 -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재편 속에서 종래의 한일 산업협력을 재강화 필요성

○ 한일경제관계의 새로운 전개

- ①수평무역의 활발화와 소비재무역 진전의 싹=보통의 선진국간 무역으로의 전환?
- ②서비스 무역 확대 : 일본의 대한 서비스 수지에도 변화
- ③인재의 활발한 왕래=코로나 이전의 조류회복 기대

○ 한일경제관계의 새로운 전개 보고서(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 2021년)

- (서장)한일경제관계 현재와 과거, (1장)한일경제관계(무역분석), (2장)IT산업(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3장)철강업, (4장)한국의 실버산업과 일본의 경험 (5장)일본의 대한투자 추이와 현상(진출사례·제3국진출)

□ 발표자 : 이형오(李亨五)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주 제 : 「한일기업간 협력의 성과와 향후 방향 : 한일재단 30주년을 맞이하여」

○ 한일 경제관계의 변화

- GDP추이, 인구변화, 무역구조, 투자추이 등
- 일본 의존도 감소요인 : 정치적 이유, 문화적 이유, 경제적 이유(한일 기업간 경쟁력 변화)

○ 한일 기업간 경쟁력의 변화

- 한국 기업 설립과 일본 기업의 지원(삼성, LG, 현대차, 포스코)
-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각국 경영방식의 변화(한 : 시장지향형, 일 : 조직지향형)
- 제품 전략 : (중국) 조합형, (한국) 준조합형, (일본) 통합형
- 글로벌 전략 : 현대-도요타, 삼성-파나소닉

○ 한일재단설립 후 30년간 한일기업간 협력의 성과

- 오늘날은 Alliance Capitalism(자본주의 동맹) 시대 !
- 協爭(Coopetition)을 통한 경쟁력 향상
協争(협쟁) = 協力+競争 / Coopetition = Cooperation + Competition
-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은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상호 큰 성과
 - * 대기업+대기업, 한 대기업+일 중소기업, 일 대기업+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
- 한일재단 30년간의 사업
 - * 기술협력(기술지도, 모노즈쿠리 연수, 경제인 교류 등), 기반형성인적교류, (경제인 교류, 지역별 교류), 무역 및 투자협력(상담회, 제3국 공동진출)

○ **한일 정치적 갈등과 한일기업간 협력**

- (갈등 계기) 2018년 10월 30일 : 한국 대법원, 일본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
- 일본 수출 규제 이후 한일 무역 변화 : 축소 후 다시 확대

○ **한일기업간 협력의 향후 방향 : 한일 기업간 협력의 강화**

- **한일기업협력 사례의 발굴 및 전파**
 - * 한일기업간 협력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발휘하는 사례의 발굴
 - * 미디어 및 학교 교육을 통한 사례의 전파
- **인적교류를 통한 협력 기회 제공**
 - * 고등학생, 대학생 간의 교류
 - * 양국 산업별 협회 차원의 교류 및 이를 통한 기업간 협력
- **양국 기업 기술 및 마케팅 교류**
 - * 과거에는 [일본→한국] 기술 이전 및 무역 불균형
 - * 향후에는 [일본↔한국] 상호 기술 이전 및 상호 무역 확대를 통한 균형
- **양국 기업 M&A 및 투자 활성화**
 - * M&A 및 투자 기회 정보제공
- **양국 기업 협력을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 강화**
 - * 양국 종합상사 및 글로벌 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 (아소시멘트) 정치가 움직이게 하는 주도적 움직임 있으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일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기를 기대

- (숙명여대) 한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치의 영향을 받으며, 긴 터프로 보면 미래로 향할 것이라 생각함

○ (오쿠라호텔) 한국 새정부 출범, 양국정상 전화회담시 한일관계 중시, 민간뿐만 아니라 정치 차원에서도 개선되면 경제면의 교류 개선 기대됨

- 국회의 여대야소인 상황에서 차기정부가 의지를 관철해 나갈 수 있을지 질문
- (숙명여대) 한일관계 객관적 자료 갖고 발표한다면 개선될 것이며, 양국만이 아니라 세계적 관점에서 한일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임. 기업들이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일본상의) 한일은 좋은 무역 파트너임에는 변함이 없음, RCEP 발효로

한일관계 개선 및 역내 무역투자 확대되기를 기대

- (한기련/무역협회) 한일관계 심화, 확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실천적 협력 관계 만들어 하나하나 사례를 구축하기를 기대
- (경제산업성) 한국측 발표자료에 한일간 정치갈등, 징용공 문제이후 수출규제 표현은 오해라고 생각, 안보보장상 의문을 갖고 관리
 - 수출규제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업간 충분히 교류한다면 수출이 허가되고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람
- (韓코디네이터) 경제인들은 정치개입 없이 경제에 집중해야 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협력해야 함
 - 와세다대학 박상준 교수의 3/14자 동아일보 기사 참고 요망
[“새 對日정책, 국제 정세의 맥락 속에서 조망돼야” \(donga.com\)](http://donga.com)
 - 한일관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접근 필요, 경제논리에 따라 교류해야 함
- (한일경제협회) 경산성의 코멘트 취지는 이해(韓수출규제, 日수출관리 엄격화), 일본언론(주한일본특파원)분들도 징용공 판결과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그런 인식을 갖고 대응을 기대
- (도레이첨단소재)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응해 주기를 요망
 - 도레이의 사업투자 경영사례 소개(서로다른 의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내 생각만이 아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과정을 거쳐 투자 결정)
 - 한 발 물러서서 상대를 바라보는 ‘역지사지’가 문제해결의 길
- (韓체어맨) 日체어맨 등 양국관계 희망적 발언, 한일관계의 진전 기대
 - 더 나빠질 것이 없는 상황
 - 한일관계 개선 성향의 새로운 인물 임명
 - 냉전체제 종식되고 세계질서재편, 한미일동맹체제로 자유진영협력 필요
 - 좋은 미래를 향해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 추진 필요

□ 세션2 (한일 공동과제의 실현)

□ 발표자 : 오카다 타쿠야(岡田 卓也) 한국스미토모상사(주) 사장

□ 주 제 : 「카본 뉴트럴(탄소중립)시대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공동과제
~ 수소 ~」

○ 한일 양국의 공동과제

- 카본뉴트럴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2018년 10월 '1.5℃ 특별보고서' 발행.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CO2 배출량을 2050년 전후까지 제로, 2050년 이후 마이너스 배출필요
- 에너지자원 부족 : 양국 모두 안전성을 전제로,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여 경제적 효율성, 환경에 대한 적합성 모색 필요

○ 한일 양국의 협력 가능분야 : 수소

- 한일 정부의 적극적인 수소/암모니아 사회 추진

- * 세계 93개국이 카본뉴트럴 목표를 채택하고, 그 중 39개국에서 수소의 국가전략이 책정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대처가 본격화.
- * 탄소중립달성을 전제로 한 수요량은 30년에 1억 4,000톤, 50년에 6억 6,000톤 수준에 달하며, 최종 에너지수요의 약 22%를 수소가 차지할 전망.
- * 아시아 지역의 수요는 2억 3,500톤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

- 한일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스미토모상사의 제안

- * 수소사회 실현에는 ①저렴한 제조, ②대량 제조·수송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 ③대량 이용(발전/자동차/ 산업)이 필수적이며, 양국 모두 수소 활용 뿐만 아니라 생산과 저장·수송 분야에서의 가치사슬 전반의 규모의 경제, 기술, 네트워크 등의 확보 및 상용화가 필요.
- * 수소분야에서의 한일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 양국 수소관련 민간기업의 공동과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스미토모상사는 양국 수소산업육성의 중심조직인 **한국의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와 **일본의 JH2A**(수소밸류체인추진협의회) 양 단체의 회원사이기도 하므로, 양국의 수소관련 기업간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각 참가업체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 유사한 과제를 안고 지리적으로도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함께 머리를 짜내고 솔루션을 만들어내어 일치단결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창조

□ 발표자 : 나기라 타로(柳樂 太郎) Mynavi KOREA Corporation 사장

□ 주 제 : 「한일 인적교류 현황 및 협력사례와 미래 준비 방향」

○ 일본취업의 과거와 현재

- 일본 국내 한국인 취업 현황 (2018) : 도소매업 25%, 숙박·음식 17.5%, 정보통신 16.9%, 제조 11.1%, 교육 9.7%, 의료 3.9% 건설 3.9%, 기타 13.9%
- 일본 국내 한국인 취업자수
 - * 2013년 296명 → 2016년 1,103명 → 2019년 2,469명
- 한국 내 일본취업 비중 (2019) : 해외 취업국가중 36.2%

○ COVID-19의 영향

- COVID-19 장기화에 따른 일본 현지 취업자 수의 감소
 - * 2020 : 1,220명(27.7 %, -8.5%p)
 - * 2021: 586명(15.7 %, -12.0%p)

○ 해외취업 프로세스의 변화

- 일본취업 포털 마이ナビ코리아 : 인재소개/ 컨설팅, 국내 일본취업 박람회, 현지 외국인 대상 박람회
- 공동 운영사(한국무역협회) : 해외취업 교육 및 설명회, 해외취업 장기연수과정, 취업사이트

○ 향후 준비 방향성 및 전략

- 코로나 시기의 채용기업 선택
 - * 내수시장 및 해외 공략 기업, 내부 다양성을 주려던 기업의 채용 축소
 - * 국적을 불문하고 우수 인재를 획득하려는 기업은 채용 유지
- 자기분석, 업계분석의 중요성
 - * 스펙 관리에 앞서 본인만의 스토리 확보 및 희망업계연구가 필요
- 기업을 보는 시야 확장
 - * 네임밸류에 따른 선입견 버리기, 기업 규모 및 소재지를 미리 한정하지 않을 것
- IT업계 : 신기술 발전, 타 직종 연계로 인력 부족, 물류업계 : 온라인 시장 확대로 물류량증가, 광고업계 : 스마트폰 보급으로 디지털 광고시장 성장, 제조업계 : 공급망재편 및 고부가 가치화로인력 부족

- (오오가키정공) 금형에 특화된 회사로 45년간 700명 가까운 ‘인재육성 사례’를 설명
 - 1기 인턴십 수료한 한국인 사원이 한국합작회사 등 거쳐 전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인재로 성장, 퇴직후 당사 재입사하여 글로벌 기업 도약
 - 한국·중국 직원에게 ‘몽고반점’ 이야기(뿌리는 같은 민족), 다같이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설명
 - 기술은 사람에게 있고, 사람이 기술을 보유, 국가를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
- (마루베니) 도레이측 발언에 깊은 감명, 의견차이 있을 때 한발 물러서서 상대방 의견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
 - 양국 정상간에도 이러한 마음을 중시하여 한일관계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비즈니스에서도 이러한 마음가짐이 필요
 - 스미토모상사처럼 탈탄소, 암모니아 신에너지사업 전개중이며, 한국과의 협업 기회 갖기를 기대함
 - 수소사회 구축에 있어서 일본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 질문
- (한국스미토모상사) 포스코, 롯데 등 한국 대기업의 경우 수소 개발 생산에 있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일본상사와의 협력을 기대
 - 투자자로서의 접근이 아닌 함께 사업운영 등 종합적 관여를 기대
 - 민간기업(상사)의 역할은 다르며, 업스트림 분야 협력을 기대
- (한국미쓰비시) 수소분야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문제이며, 자원부족 국가로서 수소분야 경쟁이 발생할 것임. 에너지 분야는 큰 과제로 한일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
- (한국외대) ‘에너지 안보’가 중요, 수소 서플라이체인 구축, 수분해 장치 개발·상용화, 가격하락이 중요, 한일의 역할분담 및 기술표준화제언
- (삼성전자) 정치에 흔들림 없이 경제협력해 나간다면 시너지 창출, 세계 정세 속에서 더 많은 성과 및 가능성을 설명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

□ 전체 자유토론

- (일본방송협회/NHK) 한일 양국관계 엄중한 상황이 3년간 지속, 자산현금화는 돌이킬 수 없는 충격발생될 것이므로 ‘현금화’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함
- (시즈오카현립대학) 한국의 분위기(공기)를 알고 싶음, 인적교류가 코로나 이후 회복될 것인지?
 - 일본은 가능(국제관계학부 한국어선택 증가, 한국도항(방문)놀이 등)
 - 한국은 일본관광 늘어날지 오리무중, 일본분 알 수 없다는 분위기
 - (韓코디네이터) 한국 젊은층의 온천, 골프인구 증가로 규제풀리면 회복
 - (한일경제협회) 수도권, 지방에도 일본문화 마을 생겨나고 있어 빠른 속도로 복원 기대. 징용공 현금화(민사소송)는 경제인들이 선두에 서서 경제계 힘만으로 해결 불가능, 경제계가 여건조성·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더 이상의 장애요소가 없기를 요망
- (日체어맨) 에너지는 양국의 아킬레스건임, 우크라이나 정세를 교훈으로 자원이 없는 국가로서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차세대 위해 수소분야 협력 등 에너지 분야의 협력이 필요
- (휴먼링크) 사회적·정치적 분위기에서 상대국 좋아하는 분위기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중요
 - 한일관계 개선 기대, 분위기를 무너뜨리지 않는 노력이 필요
- (대한항공) 코로나 지속으로 인적교류 축소, 우수한 인재들이 일본보다 다른나라를 선호, 교류 활성화 위해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를 희망
- (주일한국대사관) 글로벌 공급망, 신산업,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등 경제협력 분야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며, 양국 관계 개선 위해 노력
- (외무성) 새로운 스테이지는 상대 입장에 서서 대화 필요, 역지사지 대응을 다시 생각하여 의사소통해 나가겠음

- (경산성) 양국 정상 긍정적 전화회담, 경산성도 개선 위해 노력, 새로운 스테이지로 가져가기 위한 경제계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
- (산업부) 무역·투자협력의 중요한 국가, 인적교류, 장점을 활용한 수소 분야 협력을 기대
- (아츠미법률사무소) 코로나로 리모트로 근무, 실력과 자질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활용 필요
 - 국제질서가 재편중, 한일이 주도할 기회, 전세계 인적자원 경제계 활용
- (JETRO서울) 경제에 마이너스 or 플러스가 되기도 하는 오가키정공의 인재육성 사례에 공감
- (한국도레이) 제조분야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며 비용절감이 필요, 한일이 원팀이 되어 글로벌 대응으로 전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업 발굴
- (일한경제협회) 11년간 근무하면서 지도에 없는 길 개척, 대지진 지원 등에 감사 표명, 고교생캠프 운영, 3국 공동진출 120여건으로 증가

□ 총괄·마무리

- (韓코디네이터) 인적교류 중요하며 비즈니스로 연계, 고교생캠프 예산 확대 건의, 세토포럼 소개
- (日코디네이터) 경제안보 중요(수소), 코로나 이후 인재교류 급속 개선 기대하며 선제적 대응 건의
- (韓체어맨) 한일관계 절실함 있기에 어려움 극복 가능,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향후에는 미래협력을 기대(에너지 분야 협력의 결실)
- (日체어맨) 차세대 한일 파이프 중요, 전략을 개발하여 한일관계 진전에 활용
- (한일경제협회) 아소 체어맨의 현역인 우리 경제인이 선두에 서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 각오 다짐, 외무성·경산성 관계자 방한 기대
- (일한경제협회) 코로나 출구가 보이고 있으며, 논의내용은 공동성명에 담아 향후 관계기관에 발신

[별첨1]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일정

시 간	내 용
12:00~ 12:00~13:00 (60)	등록, 접수 (COEX Conference Room (서) # 327) 오찬 교류회 (COEX Conference Room (서) # 327 / 도시락(한식))
13:30~13:35 (05) 13:35~13:45 (10) (05) (05)	개회 (사회자) 개회 인사 ▶ 아소 유타카(麻生 泰) 일본측 চে어맨 인사 ▶ 이 관 섭 한국측 চে어맨 인사
13:45~14:00 (15) (3) (3) (3) (3)	코디네이터·양국 주최기관 인사 ▶ 다카다 노부아키(高田 伸朗) 일본측 코디네이터 인사 ▶ 이 수 철 한국측 코디네이터 인사 ▶ 우치다 토시아키(内田 敏明)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인사 ▶ 서 석 송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인사
14:00~15:00 (60) (15) (15) (20)	세션(Ⅰ) :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한일경제 ○ 아베 마코토(安倍 誠) JETRO아시아경제연구소 신영역연구센터 센터장 「한일 경제 관계의 새로운 전개」 ○ 이형오(李亨五)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한일기업간 협력의 성과와 향후 방향 : 한일재단 30주년을 맞이하여」 ○ 질의응답
15:00~15:15 (15)	커피 브레이크
15:15~16:15 (60) (15) (15) (20)	세션(Ⅱ) : 새로운 스테이지에 대한 대처 ○ 오카다 타쿠야(岡田 卓也) 한국스미토모상사(주) 사장 「탄소중립시대의 한일 양국 공통과제 「수소」」 ○ 나기라 타로(柳楽 太郎) Mynavi KOREA Corporation 사장 「한일 인적교류 현황 및 협력사례와 미래 준비 방향」 ○ 질의응답
16:15~17:00 (45)	○ 전체토론
17:00~17:20 (20)	양국 코디네이터 총괄 양국 চে어맨 총괄 양국 사무국 인사 / 폐회

[별첨2]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참가자 명단

[한국측]

【서울회의장】

	姓名		所屬 · 職責	
1	李 官 燮	LEE Kwan Sup	(社)韓国貿易協会 常勤副会長	Chairman
2	李 洙 喆	LEE Soo Chul	(株)GH Holdings 会長	Coordinator
3	徐 錫 崇	SEO Seok Soong	(社)韓日経済協会 副会長	
4	金 賢 哲	KIM Hyun Chul	(社)韓国貿易協会 本部長	
5	李 亨 五	LEE Hyung Oh	淑明女子大学校 教授	Session I
6	柳 楽 太郎	Nagira Taro	Mynavi KOREA Corporation 代表理事	Session II
7	李 泳 官	LEE Young Kwan	東レ(ドレイ)尖端素材(株) 会長	
8	高 東 郁	Ko Dong Uk	韓国優良製品振興協議会 会長	
9	金 志 哲	KIM Ji Chul	Samho Green Investment, Inc. TEAM長	
10	金 賢 日	KIM Hyun Yel	殷珉洋行 代表理事	
11	柳 廷 和	RYU Jung Hwa	Atsumi & Sakai 法律事務所 弁護士	
12	昴 星	SUBARU Hoshi	三鎬貿易(株) 代表理事	
13	朴 相 奎	PARK Sang Kyu	韓國優良製品振興協會 副會長	
14	朴 鍾 喆	PARK Jong Chul	Unitech Korea Co.,Ltd 理事	
15	司 空 穆	SAKONG Mok	産業研究院 研究委員	
16	徐 永 錫	Seo Young Seuk	BOK創業投資 總括Manager	
17	宋 永 涉	SONG Young Seop	Atsumi & Sakai 法律事務所 弁護士	
18	李 俊 雨	LEE Jun Woo	Zeobuilder Co.,Ltd. 理事	
19	李 地 平	LEE Ji Pyeong	韓國外国語大学校 特任講義教授	
20	鄭 나 나	JUNG Na Na	Mynavi KOREA Corporation 副社長	
21	洪 起 正	HONG Ky Jeong	韓日産業技術協力財団 指導委員	
22	黃 眞 吾	HWANG Jin O	三星電子(株) 部長	

23	文 盛 鏞	MOON Seong Yong	産業通商資源部 事務官	observer
24	鄭 熙 澈	JUNG Hee Chul	(社)韓国貿易協会 室長	事務局
25	河 珠 蓮	HA Ju Yeon	(社)韓国貿易協会 TEAM長	事務局
26	李 官 載	LEE Kwan Jae	(社)韓国貿易協会 代理	事務局
27	趙 德 卯	CHO Duck Myo	(社)韓日經濟協会 事務局長	事務局
28	金 正 鎬	KIM Jung Ho	(社)韓日經濟協会 部長	事務局
29	徐 光 賢	SUH Kwang Hyun	(社)韓日經濟協会 課長	事務局
30	李 裕 卿	LEE You Kyong	(社)韓日經濟協会 課長	事務局
31	沈 載 和	SHIM Jae Hwa	Mynavi KOREA Corporation 課長	事務局

【도쿄회의장】

	姓名		所屬 ・ 職責	
1	朴 龍 奎	PARK Yong Gyu	韓国貿易協会 東京支部 支部長 駐日韓国企業連合会 常勤副会長	
2	李 碩 雨	LEE Suk Woo	(株)大韓航空 日本地域本部 日本地域本部長 駐日韓国企業連合会 副会長	
3	大場 有博	OHBA Arihiro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KOTRA) 副館長	
4	徐 가 람	SEO Ka Ram	駐日本國大韓民國大使館 商務官	
5	金 琮 洛	KIM Jong Lak	駐日本國大韓民國大使館 商務官補	

[일본측]

【도쿄회의장】

	姓名		所屬 · 職責	
1	麻生 泰	Aso Yutaka	日韓經濟協會 副會長 麻生Cement(株) 代表理事會長	Chairman
2	高田 伸朗	Takada Nobuaki	N R I 社会情報 System(株) senior consultant	Coordinator
3	安倍 誠	Abe Makoto	日本貿易振興機構 Asia經濟研究所 新領域研究CENTER CENTER長	Session I
4	上田 勝弘	Ueda Katsuhiro	大垣精工(株) 代表理事會長	
5	池田 正己	Ikeda Masaki	(株)HOTEL OKURA東京 會長	
6	飯塚 秀之	Iitsuka Hideyuki	住友商事(株) Global業務部 部長代理	
7	米田 高幸	Komeda Takayuki	住友商事(株) Global業務部 課長代理	
8	藤吉 優行	Fujiyoshi Yuko	Humanlink(株) 未來人事研究所 上席委員	
9	竹内 崇恵	Takeuchi Takae	丸紅(株) 市場業務部課長 Asia大洋州TEAM	
10	橋本 栄治	Hashimoto Eiji	三菱商事(株) 地域總括部 東Asia · 大洋州TEAM 次長	
11	川崎 茂治	Kawasaki Shigeharu	一般社団法人日本經濟団体連合会 国際協力本部	
12	西澤 正純	Nishizawa Masazumi	日本商工会議所 国際部 課長	
13	矢田 久俊	Yada Hisatoshi	日本商工会議所 国際部 副主査	
14	大里 徹平	Osato Teppei	日本商工会議所 産業政策第一部 主査	
15	小針 進	Kohari Susumu	静岡県立大学 国際関係学部 教授	
16	出石 直	Ideishi Tadashi	日本放送協會 解説委員室 解説主幹	
17	小野 健	Ono Ken	外務省 Asia大洋州局北東Asia第一課 課長	
18	武田 克利	Takeda Katsutoshi	外務省 Asia大洋州局北東Asia第一課 日韓交流室長	
19	千々部 克洋	Chichibu Katsuhiro	外務省 Asia大洋州局北東Asia第一課 課長補佐	
20	山村 真人	Yamamura Masato	外務省 Asia大洋州局北東Asia第一課 外交実務研究員	
21	出雲 晃	Izumo Akira	經濟産業省 通商政策局 韓国室 室長	
22	伊集院 健夫	Ijuin Takeo	經濟産業省 通商政策局 地域通商政策研究官	
23	末永 敏	Suenaga Satoshi	經濟産業省 通商政策局 韓国室 室長補佐	
24	石丸 策基	Ishimaru Kazuki	經濟産業省 通商政策局 韓国室 係長	

25	是永 和夫	Korenaga Kazuo	日韓經濟協會 顧問	事務局
26	内田 敏明	Uchida Toshiaki	日韓經濟協會/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専務理事	事務局
27	杉山 茂夫	Sugiyama Shigeo	日韓經濟協會 常務理事	事務局
28	前田 一郎	Maeda Ichiro	日韓經濟協會 常務理事	事務局
29	金 侑 貞	Kim Yujung	日韓經濟協會 青少年交流CENTER長	事務局
30	梶山 智香子	Kajiyama Chikako	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総務部長	事務局
31	伊沢 雅子	Isawa Masako	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総務部	事務局
32	千吉良泰三	Chigira Taizo	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常務理事	事務局
33	須藤 俊	Sudo Shun	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事業開拓部長	事務局
34	杉原 景	Sugihara Kei	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日韓中小企業情報交流CENTER長	事務局
35	小田 鯨弥	Oda Keiya	(株)交宣 営業第一部	事務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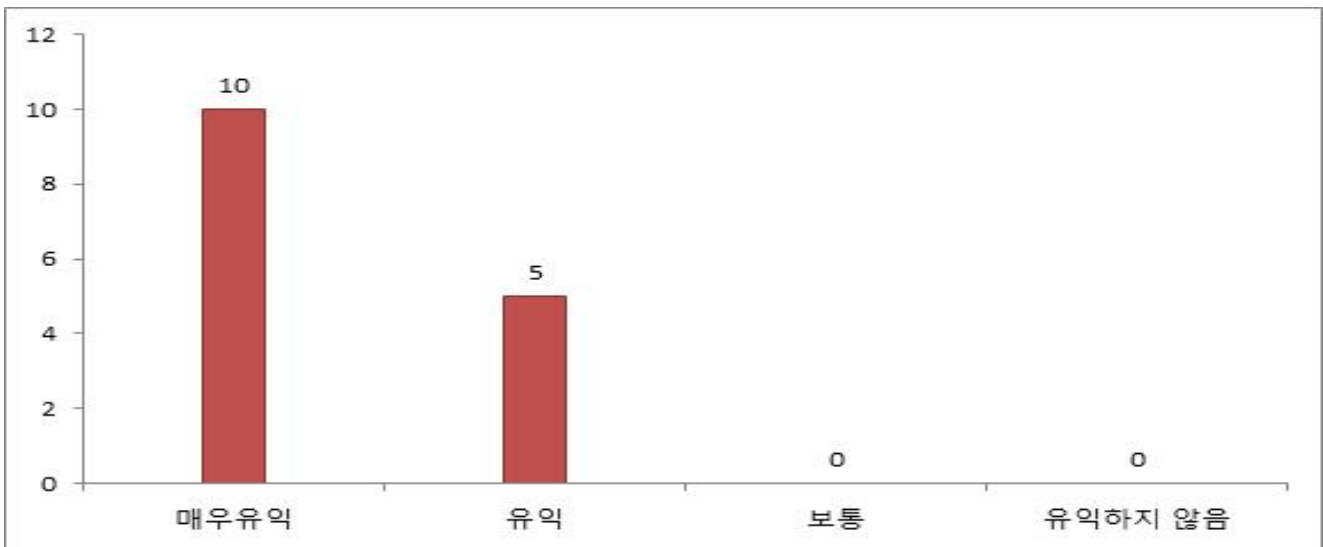
【서울회의장】

	姓名		所屬 ・ 職責	
1	佐藤 利宣	Sato Toshinobu	韓国三菱商事(株) 代表理事社長、SJC理事長	
2	岡田 卓也	Okada Takuya	韓国住友商事(株) 代表理事社長	Session II
3	長谷川 浩二	Hasegawa Koji	韓国伊藤忠(株) 代表理事社長	
4	片岡 智彦	Kataoka Tomohiko	韓国東レ(株) 副代表	
5	正富 竜一	Masatomi Ryuichi	韓国丸紅(株) 代表理事社長	
6	森山 朋之	M o r i y a m a Tomoyuki	韓国三井物産(株) 代表理事社長	
7	三根 伸太郎	Mine Shintaro	日本貿易振興機構SEOUL事務所 所長	
8	橋爪 孝徳	Hashizume Takanori	日本商工会議所SEOUL事務所 所長	
9	浪岡 大介	Namioka Daisuke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経済公使	observer
10	大西 英司	Onishi Eiji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商務官	observer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설문(의견)조사 결과

1. 조사기간 :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당일 (3월17일)
2. 조사방법 : 회의장 현장 설문(의견)조사
3. 조사대상 : 한일 양측 참가자 41명
4. 응답자수 : 15명

1 회의내용에 대한 종합 평가



2 유익했다면 그 이유는?

- 진솔한 토의로,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발표내용도 매우 유익하였다. (4)
- 여러 산업 분야 종사자들과의 의견을 테마별로 집중 조명 가능한 좋은 기회였다.
- 우크라이나 전쟁, 새로운 대통령 선출의 변화 및 갈등의 사이에서 양국간의 경제 관련 분들이 모여 충분히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한일 간의 경제 관계에 대한 그동안의 동향을 잘 알 수 있었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 한일 관계, 수소 및 민간교류가 정치를 떠나 경제계가 나서야 한다는데 큰 공감을 가졌다.

- 지식 습득 및 한일 경제 현황 등에 대해 잘 정리가 되었다.
-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매우 유익하였다.
- 구체적인 테이터가 제시되어 생각할 수 있는 힌트가 많았다.
- 코로나, 정치적 이슈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이제는 새롭게 정립되고, 경제 관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더욱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느꼈다.
- 많은 공부가 되었으며, 여러 사람들과 교류가 되었다. (2)

3 종합 평가 의견 / 건의사항

- 훌륭한 회의였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상황하에서 정말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한다.
- 전반적인 시간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져 좋았으며, 시설 준비도 만족한다.
- 여러 의견과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 구체적으로 민간교류 및 중소기업 간의 실질적 교류를 기대한다.
- 오랫동안 동회의에 참석해 봤지만, 이번 회의는 특히 매우 좋았다고 생각한다.
- 구체적인 설명, 시기적절한 주제로 매우 만족한다.
- 일본과 한국의 경제 부분에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협력과 파트너십은 정치적인 이유나 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며, 새롭게 구성되는 한국 정부가 규제와 불필요한 형식과 절차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수립에 장애물이 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함을 통해 양국의 핵심역량으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
- 논의된 내용이 정리되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꼭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언론보도내용



홈 > 산업 > 재계

무역협회,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미래 한일경제 협력 논의"

협력 사례와 향후 협력 방향 등 발표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2-03-17 11:00 송고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마이나비코리아 등에서 양국 8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해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협력관계의 구축, 탄소중립 시대 대처 등을 논의했다.

'한일 기업간 협력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형오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30년 간 일본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제조기술을 통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이 탄생했다"면서 "향후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합상사 및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oogle 광고

이 광고 그만 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나기라 타로 마이나비코리아 사장은 '한일 인적교류 현황 및 협력사례와 미래 준비 방향' 발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적교류 감소로 일본에서는 뛰어난 인재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수요가 크다"면서 "일본 취업을 위해서는 스펙 관리에 앞서 본인만의 스토리와 희망업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양국 경험의 본래의 궤도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업인 주도의 상생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점차 완화되는 규제와 경험 여건 속에서 한일 기업인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한·일 양국이 산업·무역·투자 분야에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무역뉴스

열린무역정보

구인구직

무역디렉토리

무역일반 · FTA · 산업기업 · 외환금융 · 관세/물류 · 정보마당 · 전시 · 해외 · 비즈컬처 · 외국어 · Any News · 기타

홈 > 무역뉴스 > 산업기업

+가 -가 ㉠ ㉡ ㉢

[무역 포토] 한일 신산업 협력 모색

2022.03.17 18:33 입력



[무역 포토] 한일 신산업 협력 모색

한국무역협회가 3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화상으로 개최한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무역협회 이관섭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1999년, 양국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인들이 산업·무역·투자 분야에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시작된 이 회의는 올해로 22회째를 맞았다. 이 부회장은 "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상호보완의 분업구조를 토대로 경쟁력을 함께 높여 왔다"면서 "양국 경협이 본래의 궤도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업인 주도의 상생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완화되는 규제와 경협 여건 속에서 한일 기업인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무협,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양국 경제단체 및 기업인 80여명 참석...미래 한일경제 협력 논의



최연돈 기자 입력 2022-03-17 11:00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1999년, 양국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인들이 산업·무역·투자 분야에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시작된 이 회의는 올해로 22회째를 맞았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일본의 입국자 수 제한 완화, 입국자 격리 완화 등 관계 개선 흐름에 따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마이ナビ코리아 등 양국 8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해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협력관계의 구축, 탄소중립 시대 등에 대한 대처를 함께 논의했다.

나기라 타로 마이ナビ코리아 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적교류 감소로 일본에서는 뛰어난 인재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수요가 크다"면서 "일본 취업을 위해서는 스펙 관리에 앞서 본인만의 스토리와 희망업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철 무역협회 글로벌협력본부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미래 협력을 위한 공통 과제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면서 "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행사를 통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연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yd525@g-enews.com

무역뉴스

열린무역정보

구인구직

무역디렉토리

· 무역일반 · FTA · 산업기업 · 외환금융 · 관세/물류 · 정보마당 · 전시 · 해외 · 비즈컬처 · 외국어 · Any News · 기타

홈 > 무역뉴스 > 무역일반

+가 -가

포스트 코로나·관계개선 기대... 미래 한일경협 논의

2022.03.17 14:49 입력



무협,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양국 경제단체·기업인 80여 명 참석해



▲[사진=무역협회 제공] 한국무역협회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2회 한일신산업 무역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최근 한일관계 개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양국에서 입국자 격리·인원수 제한 완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산업계가 관련 논의에 열기를 띠고 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1999년 양국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인들이 산업·무역·투자 분야에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시작된 이 회의는 올해로 22회째를 맞았다.

행사에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마이나비코리아 등 양국 8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해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협력관계의 구축, 탄소중립 시대 등에 대한 대처를 함께 논의했다.

무역협회 이관섭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상호보완의 분업구조를 토대로 경쟁력을 함께 높여 왔다"면서 "양국 경협이 본래의 궤도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업인 주도의 상생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완화되는 규제와 경협 여건 속에서 한일 기업인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이형오 교수는 "지난 30년 간 일본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제조기술을 통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이 탄생했다"면서 "향후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상사 및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이나비코리아 나기라 타로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적교류 감소로 일본에서는 뛰어난 인재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수요가 크다"면서 "일본 취업을 위해서는 스펙 관리에 앞서 본인만의 스토리와 희망 업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철 무역협회 글로벌협력본부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미래 협력을 위한 공통 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면서 "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행사를 통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채 기자

김영채 기자 weeklyctrade@kita.net

기업·CEO ▾

무협,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미래 한일경제 협력 논의

f t ↗ 최종수정 2022.03.17 14:42 기사입력 2022.03.17 14:42

🔊 뉴스듣기 >



▮ 양국 경제단체 및 기업인 80여명 참석



한국무역협회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화상으로 개최한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무역협회 이관섭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국무역협회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9년 양국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인들이 산업·무역·투자 분야에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시작된 이 회의는 올해로 22회째를 맞았다.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상호보완의 분업구조를 토대로 경쟁력을 함께 높여 왔다”면서 “양국 경협이 본래의 궤도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업인 주도의 상생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완화되는 규제와 경협 여건 속에서 한일 기업인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일본의 입국자 수 제한 완화, 입국자 격리 완화 등 관계 개선 흐름에 따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마이나비코리아 등 양국 8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해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협력관계의 구축, 탄소중립 시대 등에 대한 대처를 함께 논의했다.

이형오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30년 간 일본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제조기술을 통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이 탄생했다”면서 “향후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합상사 및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기라 타로 마이나비코리아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적교류 감소로 일본에서는 뛰어난 인재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수요가 크다”면서 “일본 취업을 위해서는 스펙 관리에 앞서 본인만의 스토리와 희망업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무협,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한일 미래 경제협력 논의

발행일 : 2022-03-17 11:00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이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한일 양국에서 경제단체와 기업인들과 한일 미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2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마이나비코리아 등 양국에서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과 탄소중립 시대 공동 대처 등을 논의했다. 첫 세션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한일 경제 관계와 한일 경제협력 성과 및 방향을 다뤘다. 두 번째 세션에서 탄소중립 시대 공동과제로 수소를 설정했고, 양국 인적교류와 협력 사례를 살폈다.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양국 경제협력이 본래 궤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인이 주도해 상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점차 완화되는 규제와 경험 여건 속에서 한일 기업인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기라 타로 마이나비코리아 사장은 코로나19로 인적교류가 감소해 일본에서는 국적불문하고 뛰어난 인재 수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취업은 스펙관리에 앞서 차별화된 스토리와 희망업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형오 숙명여대 교수는 “양국협력을 강화하려면 종합상사 및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0년간 일본 원천기술과 한국 제조기술을 통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이 탄생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결론이다.

무역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미래 협력을 위한 공통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평가했다. 김현철 무역협회 글로벌 협력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행사를 통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3월 18일(금)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3월 17일(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 지역협력실 이관재 대리 (02-6000-5274)
정희철 실장 (02-6000-5036)

※사진자료는 17일 오후 2시 20분경 송부예정

무협,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 양국 경제단체 및 기업인 80여명 참석...미래 한일경제 협력 논의 —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1999년, 양국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인들이 산업·무역·투자 분야에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시작된 이 회의는 올해로 22회째를 맞았다.

무역협회 이관섭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상호보완의 분업구조를 토대로 경쟁력을 함께 높여 왔다”면서 “양국 경협이 본래의 궤도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업인 주도의 상생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완화되는 규제와 경협 여건 속에서 한일 기업인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일본의 입국자 수 제한 완화, 입국자 격리 완화 등 관계 개선 흐름에 따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마이나비코리아 등 양국 8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해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협력관계의 구축, 탄소중립 시대 등에 대한 대처를 함께 논의했다.

숙명여대 이형오 교수는 “지난 30년 간 일본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제조기술을 통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이 탄생했다”면서 “향후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상사 및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이나비코리아 나기라 타로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적교류 감소로 일본에서는 뛰어난 인재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수요가 크다”면서 “일본 취업을 위해서는 스펙 관리에 앞서 본인만의 스토리와 희망업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김현철 글로벌협력본부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미래 협력을 위한 공통 과제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면서 “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행사를 통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요 1부. 끝.

□ **행사개요(案)**

- 일시 : 2022.3.17.(목) 13:30~17:20
- 장소 : (한국) 코엑스 327호 / (일본) 동경 오쿠라 호텔
- 참석자 : 한·일 경제단체, 기업인 임직원 등 80여명

□ **프로그램(案)**

시간	내용
13:30-13:45	(개회사) 아소 유타카 규슈경제연합회 회장 무역협회 이관섭 부회장
13:45-13:57	(코디네이터 및 주최기관 소개) 다카다 노부아키 NRI사회정보시스템 시니어컨설턴트 이수철 GH홀딩스 회장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14:00-15:00	[세션1]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한일경제 ▶ 한일 경제관계의 새로운 전개 (일본) 아베 마코토 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 신영역연구센터 센터장 ▶ 한일 기업 간 협력의 성과와 향후 방향: 한일재단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이형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15:00-15:15	커피브레이크
15:15-16:15	[세션2] 새로운 스테이지에 대한 대처 ▶ 탄소중립시대의 한일 양국 공통과제 : 수소 (일본) 오카다 타쿠야 한국스미토모상사 사장 ▶ 한일 인적교류 현황 및 협력사례와 미래 준비 방향 (한국) 나기라 타로 마이ナビ코리아 사장
16:15-17:00	전체 토론
17:00-17:20	양국 코디네이터 총평 및 폐회

* 상기 프로그램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